

# Art & Technology #2: 카르스텐 휠러

예술과 과학 사이, 무한의 세계를 넘나들다



## 일곱 개의 미닫이문



국내에서 열리는 미술 행사 중 세계적 지위를 점하는 광주비엔날레는 실력과 기획자를 과감하게 기용하며 동시대의 주목할 만한 작가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 역시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소개됐는데, 그 중 단연 돋보인 작가가 있으니 바로 카르스텐 뢰러 (Carsten Höller)입니다.

유리문을 하나만 통과하더라도 앞뒤에서 예기치 않게 열리고 닫히는 문 때문에 관람객의 시각은 확장되고 축소되기를 반복하는데, 이 지각의 변화는 거울에 비친 관람자의 모습이 무한대로 반복되면서 더욱 증대됩니다.

뢰러는 과학사에서 나타난 연구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작품에 도입합니다. 신체적, 심리

힐러가 2014 광주비엔날레를 위해 새롭게 제작한 <일곱 개의 미닫이문(Seven Sliding Doors)>은 관람객이 주체가 되는 작품입니다. 좌우로 열리는 미닫이문 양쪽 면에 거울을 부착해 관객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비추는 끝없는 통로를 완성했는데 작품에서 관객은 완벽한 주인공이 됩니다.

적 감각을 변형시킨 힐러의 작품은 놀이기구에 탑승한 것처럼 놀랍고 짜릿한 경험을 선사한다. 마치 예술은 삶을 즐기는 것이라고 말하듯 말입니다.

## 예술계의 이단아 카스텐 힐러



예술과 과학이란 두 영역을 제3자의 도움 없이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직접 예술에 응용하는 카르스텐 뢰러. 2011년 뉴욕 뉴뮤지엄(New Museum)에서 열린 <익스피리언스(Experience)>전은 카르스텐 뢰러의 역량이 잘 드러난 전시였습니다. 구조적인 건축으로 유명한 뉴뮤지엄의 3개 메인 갤러리 층과, 로비를 시원하게 뚫어 나선형의 미끄럼틀 장치를 설치한 작품은 ‘관객 참여형’ 예술의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빛이 비치는 거대한 반투명 플라스틱 구조물 속에 물을 가득 채우고 전시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에게 옷을 벗고 들어가 누워 있도록 한 작품 또한 인간 행위의 숭고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뉴뮤지엄과 작가가 협력한 이 전시는 약 18년 간 뢰러가 진행한 인터랙티브 설치를 총망라한 것이었는데, 앞서 소개한 미끄럼틀 설치 미술관 안에서 관람객들이 이동하는 대안적인 시스템으로 작용했으며, 설치작품 <the new installation Double Light Corner>(2011)는 관람객들을 둘러싼 공간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 섬광 등의 시퀀스가 사용됐습니다.

## 매니퓰레이터 뢰러(Manipulator Höller)



뢰러의 작품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학문적 연구 방식 또는 학문적 논제들을 예술적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의 관심을 받았던 주요 테마가 ‘놀이(유희)’와 ‘행복’이라면 혹자는 식상하고 보편적이라는 인상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한 작가의 변은 이렇습니다. “놀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철학사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논

또 공원의 놀이기구에서 개념을 가져온 <Mirror Carousel>(2005)은 관람객에게 전통적인 놀이기구와는 또 다른 급진적이고 색다른 신체적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작품을 둘러싼 공간이 반사되며 반짝이게 만들었는데, 이는 관람객들이 놀이와 참여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활약을 펼쳐 온 가장 상징적이고 유명한 유럽작가 중 한명인 뢰러는 마우리치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에스터(Dominique Gonzalez-Forester),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 필립 파레노(Philippe Parreno) 등과 함께 꼽히는데, 이들 모두 예술의 공간과 관객의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고, 기존 관념에 도전하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뢰러는 이들 중에서도 설치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의 시지각에 혼란을 주어 불안정하게 만드는 과학적인 실험과 역사를 그려내는 방식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뢰러의 예술적 실험 전체를 아울렀던 뉴뮤지엄 전시는 마사밀리아노 지오니(Massimiliano Gioni)가 총괄 기획했으며 2011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열려 가장 모험적이고 흥미진진한 전시로 평가 받았습니다.



1996년 쾰른에서 열린 <행복(Glück)>전에서 뢰러는 전시장에 행복감을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물건, 기계, 도구 등을 수집했습니다. 천정 위로 날아다니는 공중 회전대, 마사지 의자, 수족관, 신경 안정제 등을 공간에 설치해, 관람객들이 이를 직접 체험케 하며 동시에 자신의 유년시절 모습이 담긴 슈퍼9 필름을 동시 상영했습니다. 이때 전시를 찾은 관람객은

의된 바 없으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초적인 감정들인데도 불구하고 진지한 성찰을 없다.” 그는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 위의 감정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화적 생물학적 상관관계 속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관람객은 휠러 작품의 능동적인 참여 대상이자 동시에 실험대상이 되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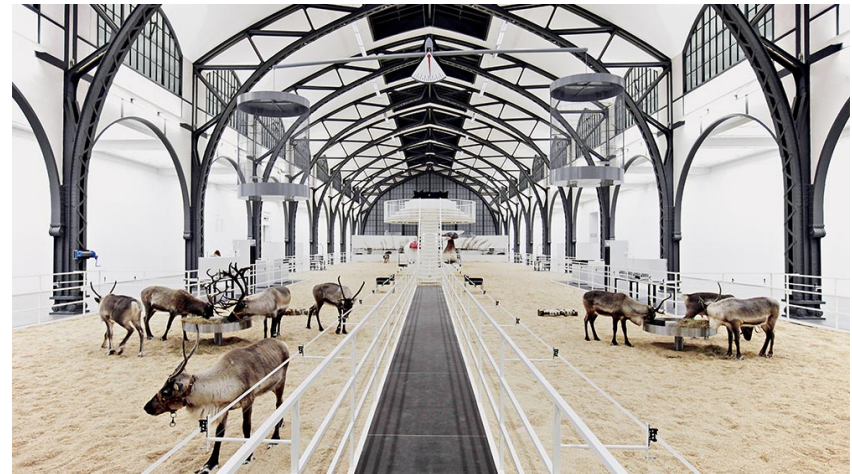


과학사에 나타났던 연구나 실험에서 영감을 받고, 그것에서 파생된 아이디어를 작품에 도입하는 카르스텐 휠러. 휠러는 물리적인 관점과 심리적인 관점을 조합하는데 탁월합니다. 그의 이 같은 작업 방식은 관객들로 하여금 삶의 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감각적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최근 휠러는 가축, 곤충 등 동물들이 인간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2015년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Hayward Gallery)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 with ARTINPOST

그의 공중 회전대를 타거나, 마사지 의자에 앉을 수 있었으며, 신경 안정제 섭취도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이 행복이라는 단어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답은 관람객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놀이(Spiel)’라는 주제를 시각화한 작품은 2009년 런던 테이트모던 터바인홀(Tate Modern, Turbine Hall)에서 선보인 55미터 길이의 거대한 미끄럼틀 <Test Site> (2006)과 이탈리아 San Servino Lucano에 설치된 공공미술작품 회전목마 <RBRide> (2007)가 대표적입니다.. 바로 이 작품들이 뉴뮤지엄 출품작의 전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거대한 설치물은 관람객에게 짜릿한 체험을 가능케 하는데, 그는 위와 같은 신체적, 감정적, 직접적 체험을 통해서만 관람객과 ‘행복’, ‘놀이’에 대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카르스텐 휠러는 어느 한 분야에 종속되기를 거부합니다.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것은 관람객과 작품 사이, 예술과 학문 사이, 학문의 전문성과 보편성 사이의 경계 허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체의 대립적, 상반적인 시나리오를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그 경계선에서 항상 유희하고 있는 것입니다.





<Y>

2003 Photo: Jen Fong Photography/TBA21 © Carsten Höller/Bildrecht Vienna 2014

# Profile

카르스텐 뢰러는 1961년 브뤼셀 출생으로 현재 쾰른과 스톡홀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일 북부 지방 킬(Kiel)에서 생리학을 전공하고 교수로 일했던 뢰러는 오직 객관성과 사실만을 전제로 하는 학문의 편협성을 거부한 채 1989년부터 과학과 예술의 영역을 넘나드는 다양한 실험예술을 통해 예술가로 커밍아웃했습니다. 자연과학자로서 한 분야에 국한되기보다는 예술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각의 상대성을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1993년과 2005년 베니스 비엔날레(Benice Biennale), 1998년 베를린 비엔날레(Berlin Biennale), 2006년 이스탄불 국제비엔날레(International Istanbul Biennial), 2013년 샤르자 비엔날레(Sharjah Biennial) 등 다수의 비엔날레에 참가했고, 1997년 로즈마리 트로켈(Rosemarie Trockel)과 공동으로 카셀 도큐멘타(documenta X)에서 설치물 <돼지와 인간을 위한 집(Haus für Schweine und Menschen)>을 통해 미술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00년 Art 31 Basel/Film에서 리암 길릭(Liam Gillick), 더글라스 고든(Douglas Gordon),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 필립 파레노(Philippe Parreno), 리크리트 티라바니야(Rirkrit Tiravanija) 등 내로라하는 현대 미술가들과 협업한 영상 <Vicinato II>을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1년 뉴욕 뉴뮤지엄(New Museum), 2014년 파리龐피두센터(Centre Pompidou) 등 다양한 전시에 참가했습니다.

